


2020년 통도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숲속 작은 음악회'. 코로나로 닫혔던 산문이 가을 맞아 문화행사로 활짝 열린다.

# 가을정취 사찰서 문화로 만끽해볼까?

## 산사음악회 및 축제 전국사찰서 3년 만에 재개

**청량사·봉국사·대조사 비롯 산사**
**문화행사, 음악회로 대중맞이 분주**
**조계사 '국화', 봉은사 '생전예수재'**
**법주사 '사찰음식' 등 저마다 특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가을 향기 듬뿍 머금은 산사에서 꿈과 희망의 에너지 가득한 무대가 펼쳐진다. 전국 사찰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닫았던 산문을 3년 만에 활짝 열고 산사음악회와 축제를 연다.

**봉화 청량사**(주지 운담)는 10월 1일 오후 7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2022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연다.

산사 음악회의 원조로 통하는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희망을 노래하고 꿈을 향해 내달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선물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서고 싶고 다시 한 번 오르고 싶다'는 찬사에 걸맞게 무대를 장식할 뮤지션을 초청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모두가 힘들고 고단한 시기, 안방에 웃음과 휴식을 준 트로트 열풍의 주역들과 함께 한바탕 흥겨운 놀이마당을 펼친다.

종편 예능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진을 수상한 가수 양지은을 비롯해 김의영, 은가은, 강태관 등이 무대에 올라 산사의 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여기에다 소프라노 박선영, 테너 오상택,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의 공연이 더해져 청정도량 청량사를 찾는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가을 산사의 추억을 선사한다.

청량사 주지 운담 스님은 "코로나 시대를 살며 힘든 일상을 지내는 이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돼 드릴 것"이라며 "청량사의 기운과 출연진들의 열정, 그리고 사랑을 듬뿍 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등을 토닥이고 싶다"며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굽이진 삶에서 때론 뒤에서 밀어주고, 때론 땀을 식혀주는 청량한 바람과 같이 청량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054)672-1446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228주년 개산대재를 맞이하여 9월 26일 다례재를 시작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전통문화 축제행사를 펼친다.

봉은사는 9월 26일 역대조사 스님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그 뜻을 기리는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어 9월 28일 판전에 소장된 주요 문화재인 화엄경판 인경본을 정대(頂戴)하고 봉은사 도량과 법계도를 요잡하는 '정대불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불교 전통방식으로 진행하는 '생전예수재(서울시 무형문화재 52호) 49일 기도 회향'을 10월 3일과 4일 양일간 봉행한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전통문화축제 행사로는, 전통 차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차항아리 전시전', '찻자리 및 다식체험'과 '차 문화 학술세미나'가 개최되며,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에서는 '전통등', '전통단청', '전통민화', '전통매듭'을 체험하는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봉은사 신도회는 이번 축제 기간 중인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행복나눔바자회',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봉은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봉은사 그림그리기대회'를 진행했으며,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은 '봉은사 사진전시회', '마당놀이', '사찰음식 시식행사', '국기원 태권도시범공연', '남사당패 놀이' 등 다양한 행사도 선보였다. 02)3218-4831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9월 28일 제12회 조계사 국화축제 '시월 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를 개막한다. 조계사는 10월 4일 오전 9시 30분 중양절 국화수륙재, 10월 6일과 7일 조계사 문화본부 예술제 '지음', 10월 8일 불교대학총동문회 문화대축전, 10월 14일 오후 7시 30분 '음악이 있는 야경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밖에 10월 15일에는 지역본부 창립기념 승보공양법회 '지심귀명례'와 10월 26일 일자리박람회도 연다.

또 조계사는 이번 국화축제 일환으로 10월 23일 제11회 어린이 미술대회 '나는 화가다'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OCI미술관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국화가 피어있는 조계사, 부처님과 나'를 주제로 조계사 일대에서 펼쳐진다. 10월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5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이뤄진다. 02)768-8600

전국 교구본사도 개산대재를 기한 문화축제를 준비 중이다.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는 10월 3일 '통도사 산문이 열린날'을 주제로 영축문화축제 일환으로 문화공연을 진행한다. 삼성교반월교 특설무대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이은미, 노라조, 청명 등 가수들이 참여해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인다. 055)382-7182

**보은 법주사**(주지 정도)는 9월 30일 '2022속리산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1부 법주사 개산대재를 시작으로 사찰음식 향연인 '백미백락'과 3부 보살계산림대법회, 4부 도민행복 법주사산사음악회가 이어진다. 043)543-3615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는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개산 1298주년 및 창건 1182주년 기념대축전을 연다. 이번 기념대축전은 산문을 열고 사찰을 창건한 의미를 돌아보는 단순한 기념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년 넘게 이어온 수행 가풍을 계승하는 한편 불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수행과 문화의 장으로 펼쳐진다. 기념대축전에서는 9월 28일 대광광불화엄경 고산대선사 약찬가 독송기도, 9월 29일 일해덕민 대강백의 진감선사 대공탑비 특강 등이 진행된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개산 1298주년 및 창건 1182주년 기념대축전을 계기로 역대 선지식과 중창주이신 고산대선사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 문도들과 본말사 스님들이 '불식촌음'을 실천하여 새로운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우는데 디딤돌이 되겠다"면서 "저를 비롯한 총림 대중이 주경야독(晝耕夜讀)을 일상화하고 생산불교(生產佛敎)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055)883-1901

**성남 봉국사**(주지 혜일)는 10월 8일 2022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봉국사 효사랑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봉국사 효사랑 문화축제는 1부 위령천도재, 2부 효사랑음악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천도재는 오후 3시 시작되며, 2부 효사랑음악회는 오후 6시 진행된다. 음악회에는 박구윤, 양수경, 권미희, 이빛나, 야단법석 합창단 등이 참여하여 봉국사 창건설화 노래극과 국악 공연 등을 펼칠 계획이다. 031)755-0329

**공주 구룡사**(주지 진명)는 10월 1일부터 '구절산 구절초 꽃축제'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5만평 규모의 구절초 자생지인 구룡사에는 가을이면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10월 9일 오전 10시 5층석탑 제막식 및 산사음악회도 열린다. 행사 현장에서는 달마도그리기, 돌탑쌓기, 구절초꽃차 만들기 및 사진촬영 대회에 참여 가능하다. 041)841-8838

**부여 대조사**(주지 현중)도 10월 2일 '관음조가 미륵불을 만나다' 미륵대재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오전 10시 미륵대재를 시작으로 오후 4시 산사음악회로 이어진다. 산사음악회에서는 박서진, 신이나, 서주경, 최재숙, 박성현 등이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단청그리기, 산사장터 등이 펼쳐진다. 041)833-2510





